

“승려인가 속인인가?” “마음 끌리는 대로 살려합니다”

<26>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7)

강서(江西)의 법주(法主)로서 남악계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와 호남(湖南)의 법주로서 청원계 석두 희전(石頭希遷) 선사가 조사선(祖師)을 크게 펼칠 때, 선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거사가 출현했다. 그가 바로 방온(龐蘊) 거사이다. 거사는 평생을 통해 석두와 마조 두 선사를 비롯해 단하천연(丹霞天然), 약산유엄(藥山惟嚴), 대매법상(大梅法常), 낙포 원안(落浦元安), 양산혜적(仰山慧寂) 등 당시 유명했던 선사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에 따라 <거사전> <거사분등록> <불법금당편> 등의 거사전에 전기가 실려 있다. 또한 <조당집> <경덕전등록> <속고승전> <불초통기> 등 거의 모든 선종사서에 방 거사와 관련된 기사(記事)들이 실려 있고, <고존속어록> <연등회요> <오등회원> <지월록> 등 공안집과 <벽암록> <대해보각선사어록> 등 수많은 선어록에 거사와 관련된 선화(禪話)가 언급돼 있다. 조금 과장해 말한다면 방 거사가 활약했던 이후 출현한

살하는 ‘자재(自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다운 도인이 어디 있는가?’ 라는 물음인데, 석두 선사는 거사의 입을 막아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도리로서 답했고, 거사는 바로 이른바 ‘말을 있어 참 도리를 깨우침(忘言會旨)’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날 석두 선사는 다시 거사에게 “그대는 노승을 찾아온 이래로 일상생활(日用事)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거사는 “만약 일상생활을 묻는다면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계승으로 “일상생활은 별 다른 게 없으니, 오직 나와 한가지로 다. 낱알이 취하고 버릴 것이 없고 처처에 어그릴 것이 없네. 벼슬아치들(朱紫)을 누가 귀하고 했는가? 언덕과 산은 한 점 티끌도 없도다. 신통과 묘용은 물 길고 나무하는 것일세!”라고 물었다. 이에 석두 선사는 “그대는 승려인가 아니면 속인인가?”라고 묻자 거사는 “다만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려



삼가 온갖 무(無)를 진실이라 여기지 말라. 세간에 잘 머물러라. 모든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으니라(但願空諸所有, 切勿實諸所無. 好住世間, 皆如影響)라는 계승을 읊었다. 계승을 마치자 방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고 거사는 입적했다. 우적 거사는 방 거사를 여법(如法)하게 다비를 모시고, 거사의 부인과 아들에게 방 거사와 영조의 죽음을 알리고자 사 람을 파견했다. 방 거사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어리석은 딸과 지혜 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알 리지도 않고 가더니, 참을 수 없구나”라고 하고서 아 들에게 가서 방 거사와 영조가 갔음을 알렸다. 아 들은 김매면 호미를 놓더니 “앗!”하고 소리를 지르며 선채로 가버렸다. 부인은 “바보 같은 아들이 어리 석기가 더욱 심하구나”라고서 아들 또한 화장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기이해 했다. 얼마 지나 지 않아 방 거사 부인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별을 고하고,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방 거사와 가족의 입적 이야기는 <거사전> 권17, <조당집> 권15, <경덕전등록> 권8 등을 비롯한 여 러 선종문헌에 조금씩 가깝게 천고(千古)의 미담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 거사의 입 적을 지켜보았던 우적 거사는 방 거사 입적 후 <방 거사어록>을 편찬하면서 다만 방 거사 딸인 영조가 방 거사보다 ‘민첩하게’ 좌망한 일만을 기록하고 있 어 방 거사 부인과 아들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방 거사는 계승을 짓는 것을 즐겼다. 그의 어록에 는 약 300여 수(首)의 계승이 전해진다. 이러한 계승 들은 모두 지극한 선리(禪理)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전편에 흐르는 사상은 바로 마조 선사의 홀종종 선 법이라고 하였다. 거사의 계승 가운데 ‘만약 번뇌를 버리고서 보리를 찾는다면 어디에 부처자리가 있는 지 알지 못한다’ ‘보살도를 논하지 않고서는 부처 또한 애써 이를 것이 없다’ ‘신통과 묘용은 물 길고 나무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들은 바로 유명한 마조 선사의 ‘도(道)는 닦음을 쓰지 않으니, 다만 오염되 지 말라.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 어 조작하고 좇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造作), 사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凡)·성(聖)이 없음[無]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범부의 행함도 아니며 성현의 행 함도 아니며 보살행’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행주와 와(行住坐臥)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을 접함이 모 두 도’라는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방 거사는 재가에 있으면서도 관직이나 다른 생업 을 종사하지 않고 선(禪)에 전일(專業)했던 특수한 입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는 주로 재시와 외호에 힘썼던 사대부 거사와는 차별을 보이는 것이고, 이는 또한 방 거사가 승속의 경계조차도 초탈한 조사 선 풍격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재시·외호 힘쓴 사대부들과 달리 禪에 전념한 방 거사 부인 딸 아들 함께 수행해 득도... ‘중국의 유마’

거의 모든 선종서적에 거사가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온 거사는 선종에 있어서 가장 대 표적이면서도 전형적인 거사라고 하겠다.

방온(?~808) 거사는 자(字)가 도현(道玄); 패제정의 <거사전>에는 ‘도(道)’으로 돼 있음으로 대대로 유가(儒家)를 업으로 하는 집안출신이며, 부친이 형양(衡陽)태수를 역임했다. <거사분등록>과 <거사전>에 따르면, 거사는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거주하지 않고, 본가의 서쪽에 암자를 지어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수년 동안 수행해 모두 득도했다고 한다. 거사의 ‘아들이 있으되 장가 안 들고, 딸도 시집가지 않 은 채, 은 식구 모두 단란해 함께 무생(無生)의 이야 기를 주고받노라’는 계승은 이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거사는 득도 이후 암자를 버리고 본가를 절 로 만들고, 가재(家財) 수만 점을 배에 실어 동정호 상강(上江)에 떠돌아다니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정원(貞元) 초년(785)에 거사는 석두희전 선사를 참애했다.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 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석두 선사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손으로 거사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에 거사는 활연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만법 과 짝하지 않음’이란 바로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로

합니다”라고 답했다. 석두 선사의 물음은 그렇게 명 확하게 선리(禪理)를 깨달은 거사가 무엇 때문에 즐 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고, 거사의 답은 마치 유 마 거사처럼 재가거사의 신분으로 살아갔다는 뜻 이다. 결국 거사는 평생을 재가거사 신분으로 있었 고, 그에 따라 ‘방 거사’로 칭해졌다. 석두 문하에 머 물면서 거사는 단하천연, 약산유엄, 대매법상 등의 선사들과 깊게 교류했다.

그 후, 거사는 마조 선사를 참애했다. 거사는 석두 선사에게 물었던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이 는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마조 선사에게도 물었다. 선사는 “그대가 서강(西江)의 강물을 한입에 다 마셔버린다면 말해주리라”라고 답했다. 이에 거 사는 확철대오해 필뭇을 빌려 ‘사방에 있는 사람들 이 함께 모여, 개개인이 무위(無爲)의 도를 배우니, 이것이 부처를 가려내는 도량이다. 마음이 공해 급 제해 돌아가네!’라는 계승을 지었다. 이는 후대에 ‘한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이킴(一口吸盡西江水)’ 이 라는 화두로 선택들이 즐겨 참구하는 바였고, 특히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는 이에 대해 “한 입에 서강 의 물을 다 들이키니, 낙양의 목단에 새 꽃술이 터지 네. 흙을 털고 먼지를 날려도 찾을 수가 없으니, 눈을

들면 자신과 마주치게 되리라”(《선종승고려주통집》 권14)라고 평했다. 이로부터 방 거사를 ‘한입에 서강 의 물을 다 들이켰던’ 인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렇게 마조 선사로부터 확철대오했기에 역대로 거사를 마조 선사의 사법(嗣法)으로 인정한다.

거사는 2년 동안 마조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원화(元和) 연간(806~820)에 북방으로 유행해 양양(襄陽)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착했다. 거사의 딸 영조(靈照)가 조리를 만들어 팔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 했다. 영양에 머물면서 방 거사는 당시 주목(州牧)이 었던 우적(于頔) 거사와 막역한 친구로 지내면서 수 시로 왕래했다. <거사분등록>에는 거사의 입적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거사가 입적할 때가 됐음을 알고, 딸에게 “이 세계 는 환상과 같아 참답지 못하니, 너는 인연에 따라 살 아라”라고 말하고, 딸에게 몇 시쯤 됐는지 밖에 나가 해를 보고오라고 시켰다. 딸이 나갔다 돌아와서는 “해가 이미 났지만 일식 중이어서 잘 안보이니, 잠깐 보시지요”라고 말했다. 거사는 “있는가?”라고 묻자 딸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거사가 자리에서 일어 나 창가로 가서 딸은 얼른 거사의 자리로 올라가 합 장을 하고 좌망(坐亡)했다. 거사는 웃으면서 “내 딸 의 기봉(機鋒)이 민첩하구나!”라고 하고서 딸의 시신 을 화장했다. 7일 후에 우적 거사가 찾아오자 거사는 손으로 우적의 무릎을 잡고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만 원컨대 온갖 유(有)를 공(空)으로 돌릴지언정,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어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 (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빛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어떻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십시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자개인지도 예약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